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익산중앙동 침수피해 지원 방안 찾을 것"

전주매일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음 7월 16일) 제284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2주 연장

전북도, 정부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 따라
김제·부안 2단계 하향, 무주 29일까지 3단계 격상
단계 구분 없이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유지

정부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단일화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은 7월 12일 4단계 격상 이후, 8월 첫주(일 평균 1,495명)까지 정체 또는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8월 둘째주(1,780명)에는 19% 증가세로 전국적 확산세에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전주(558명)보다 26% 증가해 일 평균 확진자는 703명으로 7월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 특성(높은 전염력과 짧은 전파주기, 높은 중증도 비율, 감염예방 효과의 일부 감소)으로 인해 무증상자 및 경증 환자의 낮은 진단검사율, 증상 발생 및 진단 이전에 이미 다수에게 전파하는 등 역학대응의 한계가 있어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현 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적인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이동량 감소는 미미한 상황(전주대비 0~0.1% 변동없이 정체)이라며, 국민 피로감 증가로 거리두기 참여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휴가철 이동 증가와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의 방역 강도를 유지하고 예방접종을 확대 추진하면, 4차 유행은 9월 중하순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주 뒤 추석명절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등 방역전략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전 시·군에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을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 연장·조정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 제외)·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 제외)지역은 현 단계 그대로 2주간 연장한다.

다만, 환자수 급증으로 3단계로 자체 격상한 김제시와 부안군은 지역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2단계로 하향 적용하기로 해당 시·군에서 결정했다.

핀셋 방역으로 '무주군 무풍면'에 대해 외국인 집단감염 선제적 차단을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3단계로 격상된다.

▲방역수칙 적용

도내 전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사적모임은 4인까지, 직계가족도 4인,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제한도 계속 적용한다.

사적모임 예외사항으로 예방접종완료자(최종접종 완료 14일 경과자)와, 동거가족·아동(12세 미만)·돌봄·임종 시에는 적용된다.

방역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미흡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편의점의 경우 3단계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금지와 야외테이블·의자 등 이용금지, 흡연실은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그 밖에 행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정부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4차 유행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진행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까지 전 도민의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델타형 바이러스의 유행, 휴가철 이동과 만남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적극 동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과 가족·친지와의 만남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도내 기관·업체와 ESG 경영 실천 본격

전북도, 현대차 전주공장
한전 전북본부 등과 협약
사회공헌 사업 추진 약속

전북도와 지역의 기관·업체들이 지난 20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수소중심도시 실현과 ESG 경영실천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북도에서도 지방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힘을 합쳐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 경영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참여기관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친환경에너지(태양광, 수소 등)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ESG 사회공헌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의 핵심 화두로 자리잡은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로 지속성장을 위해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전북지역사회의 업무협약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이상기온 발생 증가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대상자 발굴·추천 및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기관과 기업들은 ESG 사회공헌을 위해 펀드를 조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북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펀드 관리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했다.

올해에는 각 기업에서 조성된 펀드로 ▲취약계층 및 에너지 빈곤층에 소용량 태양광을 설치, ▲전기사용량이 많은 저효율·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 ▲재난·재해 지역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친환경 차량을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기후·환경 위기 대응이 부각되면서 ESG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사회 ESG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구제역 없는 청정전북' 양돈 밀집단지 항체 검사

도, 도내 196개 농가 대상 오늘부터 실시

전북도가 구제역 없는 청정전북을 위해 23일부터 양돈 밀집단지 등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에 나선다.

도는 23일부터 3주간 양돈 밀집단지 176농가와 항체 양성률이 70% 미만인 항체 저조농가 20농가 등 도내 196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양돈 밀집단지에서 항체 양성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양돈 밀집단지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 한달 만에 항체 양성률이 1.1% 증가(6월 92.3%, 7월 93.4%)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일제 검사를 통해 도내 항체 양성률을 더욱 높여 구제역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철저한 백신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으니 이번 일제 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양돈농가는 주기적인 백신 접종과 함께 농장 소독, 차량·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5년 연속 구제역 없는 청정한 전북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양돈밀집단지는 모두 7개소(군산 1, 익산 2, 정읍 2, 김제 1, 진안 1)로 양돈농가의 21%인 176호가 사육하고 있으며, 구제역 방역을 위해 1차 8주령, 4주 후에 2차 예방백신 접종(2021년 양돈농가에 512만2,000두 예방백신구입비 91억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